



「圖書記號」組織의 實際

— 當面한 諸問題를 中心으로 —

朴 尙 均
東大圖書館 司書主任

I. 諸 言

우리 나라에 새로운 圖書館學이 導入된지 25여년이 되었으나, 圖書館 業務 가운데 가장 技術的인 業務에 속하는 目錄 分野의 경우, 아직도 그 目錄의 定立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현재 一般 圖書館들이 目錄作業에 있어 여러가지의 複雜性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目錄作成의 基本이 되는 法律인 「韓國目錄規則」이 있고 그에 대한 解說書까지 이미 나와 있지만은 一線 實務者들에게 있어, 사실상 現行 「韓國目錄規則」은 整理上의 實務指針書로서의 계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韓國圖協, 目錄分科專門委員會에서 다시 「韓國目錄規則」修正作業을 進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지 오래이나, 아직까지 그 修正增補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筆者의 管見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修正作業이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큰 이유의 하나는, 먼저 이 땅에 우리의 實情에 알맞는 目錄學이 아직 定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圖書館學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分類目錄學의 研究에 있어 그 不振한 領域이 많다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學生들의 教材用으로나 一般 圖書館의 實務에 마땅한 分類學·目錄學 책 하나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筆者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論題는 현재 韓國目錄規則 修正作業에 있어, 지금까지 分類學의 一環으로 다루어왔던 「圖書記號」를 앞으로 修正版이 나올 目錄條項에 插入하여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筆者는 本論文에서 圖書記號를 目錄에 導入시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물론 現行 目錄規則에는 「도서기호」條項은 없다. 다

만 著者記號表에서 부분적으로 그 適用의 實例를 表記하고는 있으나 「標準화된 圖書記號規則」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그 整理가 천차만상인 것 같다.

實務에 있어 「도서기호」작업이 이처럼 無秩序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標準화된 圖書記號規則」이 없는 것이 그 첫째의 이유이겠지마는 현재 각 도서관학과의 分類·目錄學 講座에 있어 教授들이 「도서기호」에 대한 原理上의 基本的인 설명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고, 실제 實物에 의한 現場 實習教育이 不足한 데에 그 原因이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려는 학생들이 졸업 후, 막상 實務에 임했을 때 일반적으로 「도서기호」배정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분류·목록 작업이란 오랜동안 實務를 담당하지 아니하고서는 自信을 갖기가 어려운 일이며, 그 중에서도 「도서기호」배정 작업 같은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을 익숙하게 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마는 문제는, 졸업생들이 「도서기호」의 구성 요소에 대한 精確한 지식마저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實務者들이 겪고 있는 隘路를 勘案했음인지, 근년에 金南碩 教授에 의해 一般圖書館의 編目指針書라고 할 수 있을 「圖說圖書編目」¹⁾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이 編目書로서는 처음 나온 셈이다. 여기에 보려는 圖書記號에 대해서 實務에 도움이 되도록 目錄카아드의 實例를 作成하여 몇가지 경우를 例示하고 있다. 이 編目書는 현재 實務者들의 現場參考書로서 많이 活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서관학과의 目錄學參考書로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編目書의 活用만으로 모든 目錄上의 어

1) 金南碩, 圖說圖書編目, 啓明大學出版部, 1975.

러운 問題들이 解決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筆者는 분류·목록 작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까다롭고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도서관호문제에 대하여, 10여년간의 整理業務의 경험을 토대로 「도서관호」의 실제 배정에 따른 諸問題들을 하나하나 그 實例를 들면서 「도서관호」표기의 一元化의 方法을 試圖해 보고자 한다.

II. 圖書記號의 構成과 用語의 統一問題

圖書記號에는 圖書의 到着順에 의한 受入順記號, 著者를 記號化한 著者記號, 發刊年代를 記號化한 出版年代順記號등이 있다²⁾.

이 세가지 方法 중 著者의 姓名을 文字 및 數字化하여 組織한 著者記號法을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서관호」는 著者記號와 그 다음에 附加하는 書名記號, 複本, 版次, 冊數등을 表示하는 著作記號³⁾(Works numbers mark)로 구성된다 할 수 있다. 다시 이를 요약하면 著者記號(author number)+著作記號(Works numbers mark)로 구성된다.

그런데, 鄭駟謨 教授는 「圖書記號」라는 呼稱 代身「文獻記號」⁴⁾라는 用語를 사용하고 있다. 圖書館用語集(1966년發行)에도 나오지 않는 이 새로운 用語는 圖書館人들에게는 아직도 鄭駟謨 教授가 그 用語를 사용하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도 生疏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圖書記號와 同一한 概念을 지닌 用語로서 定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圖書」란 말 대신 「文獻」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概念을 지닌 것은 아니고 數年前에 圖書館學界에서 圖書館學을 文獻情報學으로 改稱⁵⁾하기로 合意한 바도 있어, 그런 意圖에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鄭駟謨 教授는 「文獻記號의 構成」⁶⁾(圖書記號의 構成)을 說明하는데 있어서도 「著者記號」란 말 대신 「基本記號」라고 달리 表現했고, 「著作記號」도 이를 「副次的記號」⁷⁾라는 用語로 代身했다. 鄭駟謨 教授가 「著者記號」라는 用語를 쓰지 않는 이유로는 第二次 排列을 위한 區分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著者의 姓名만을 文字, 數字, 其他의 記號로 組立하여 記號化하는 것이 아니라, 團體著者인 경우는 團體名이, 그리고 無著者名圖書의 경우는 그 書名이 標目으로 定하게 되며, 그 정해진 團體名이나 書名도 동일한 方法으로 記號化하게 되므로 「著者記號」라는 用語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矛盾點이 있다고 생각해서 「著者記號」란 用語 대신 「基本記號」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鄭駟謨 教授는 文獻記號를 構成하는 基本記號 이외에 「副次的記號」를 「著作記號」와 同一한 概念으로 쓰지 않고 있다⁸⁾. 李丙

洙씨는 「著作記號의 構成」을 書名記號·複本·版次·卷數 등의 各要素를 包括하는 뜻⁹⁾으로 쓰고 있는데 대해서 鄭駟謨 教授는 「著作記號」를 다만 標題記號 또는 書名記號와 同一한 概念으로 보고 이를 副次的記號를 構成하는 各要素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¹⁰⁾. 다시 말하면 副次的記號는 著作記號·版次記號·卷次記號·複本記號 등 各要素로 構成¹¹⁾된다고 했다.

한편 鄭駟謨 教授는 좁은 意味의 文獻記號는 基本記號만을 의미한다¹²⁾라고 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狹意의 圖書記號는 著者記號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張一世 教授는 「도서관호」를 일반적으로 著者記號라고 부른다¹³⁾라고 했는데, 이 경우 좁은 意味의 圖書記號를 뜻하는 것으로 解釋이 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圖書記號에는 廣意의 圖書記號와 狹意의 圖書記號의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筆者가 本論考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狹意의 圖書記號 보다는 廣意의 圖書記號이다. 狹意의 圖書記號 즉 著者記號(基本記號)에 대해서는 整理上 큰 隘路는 없지마는 廣義의 圖書記號의 경우 實際 카야드 위에 이를 適用하는 作業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緒言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현재 標準화된 圖書記號規則이 없기 때문에, 實務에 있어 著作記號(副次的記號)의 各要素 하나하나를 組織하는 作業에 混亂을 빚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최고하건대, 「圖書記號」의 構成 가운데 「著者記號」에 관한 研究는 圖書館學 導入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서관학의 큰 이슈가 되다시피 그 연구가 활발했으며, 이에 대한 책과 論文들이 많이 發表됐었다. 즉 1954년 高在稔씨의 韓·中書를 위한 「韓國著者記號表」와 日書를 위한 「日本著者記號表」, 그 후 1955년의 Elrod 「著作記號採記法」, 1958년의 李載喆 教授의 「동서저자기호표」, 1960년에는 李春熙 教授의 「東洋著者記號表」, 1961년에는 張一世 教授의 「韓國人著者記號表」와 1964년에는 張一世 教授의 그의 「韓國人著者記號表」를 改正 增補한 「東洋書著者記號表」 그리고 1972년에는 李載喆

2) 李丙洙, 圖書分類法의 比較와 分類의 實際, 內外文化社 1977. P. 664. 정필모, 문헌분류법,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1. P. 121.

3) 李丙洙, 前掲書, P. 664. 도서관업무편람, 국립중앙도서관, 1973. P. 157.

4) 鄭駟謨, 韓國文獻記號表, 中央大學校 圖書館學會, 1972. 序文 參照.

5) 鄭駟謨, 文獻情報學, 序言 參照.

6, 7) 鄭駟謨, 韓國文獻記號表, 中央大 圖書館學會, 1972.

8, 9, 10, 11) 鄭駟謨, 韓國文獻記號表, 中央大學校 圖書館學會, 1972. P. 5

12) 鄭駟謨, 前掲書, P. 5.

13) 張一世, 韓國目錄規則解説, 附錄·圖書館用語集, P. 268.

교수의 1958년에 발표했던 「동서저자기호표」를 개정한 「東西著者記號表」가 발표된 바 있고 같은 해에 鄭駟諤 교수의 「韓國文獻記號表」가 나왔다. 그리고 論文으로는 이제철 교수의 「동서저자기호의 특징과 그의 사용법에 대하여」 역시 이제철 교수의 「構造論에 입각한 한국저자 기호표의 연구」, 그리고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 정필모 교수의 「한국문헌기호법 연구」, 장일세 교수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저자기호표에 관한 연구」 등 많은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같은 研究領域에 속하면서도 「著者記號」에 대해서는 그 研究가 活潑했으면서 「著作記號」(副次的記號)에 대한 研究는 거의 그 研究가 不振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지나친 생각일른지는 모르지마는 「도서기호」를 目錄의 範圍에 넣어 생각할 때, 目錄은 原理의으로 統一性을 가진 目錄이 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저자기호」 또한 그 統一性을 期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저자기호화의 목적은 도서의 배열 및 검색을 빨리 그리고 손쉽게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저자기호」의 연구가 크게 진전을 가져 왔고 여러 개의 「著者記號表」까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표준화된 저자기호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도서관마다 제각기 다른 「저자기호법」을 사용하고 있어 저자기호의 통일성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著者記號 다음에 附加되는 著作記號의 組織問題에 있어 그 統一性을 期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著者記號 研究에 있어 著作記號 문제까지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書名記號, 版次記號, 卷次記號, 複本記號 등 各要素에 대한 個別的인 記號配定問題에 이르기까지 다루기는 했으나 이에 대한 研究가 너무 未洽했었다는 사실이다.

著者記號에 있어서는 그 適用을 위한 몇가지 「著者記號表」가 나와 있으나, 副次的記號(著作記號)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 整理의 道具(Tool)가 없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實務에 있어 各要素의 個別的인 記號를 配定하는데 있어 많은 隘路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Ⅲ. 標目的 表記와 著者記號와의 關係

현재 各種 圖書館에서 日書, 洋書가 차지하는 比重은 날로 커가고 있다. 이들 外書들의 整理에 있어서, 標目を 우리 말로 번역해서 原名대로 表記하는데 적지 않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文教部 制定의 「로마자 한글화 表記法」(1959, 10.)과 「日本 카

나의 한글화 表記法」(1963. 7) 등이 있지마는 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사회에서나 언론기관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여 도서관마다 자기 나름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日本 人名의 경우, 川瀨一馬를 基本記入으로 했을 때, 固有人名이므로 原名대로 表記해야 하는데 있어서 문교부에서 제정한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면 “카와세, 카스마”로 表記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나 “가와세 가스마”로 읽고 있는 것을 구태여 문교부 표기법에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田中義雄의 예도 마찬가지다. 문교부 표기법에 따르면 “다나카, 요시오”가 아니라 “타니카, 요시오”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西洋人名의 경우는 문교부 제정의 「로마자 한글화 表記法」이 Webster's Biographical Dictionary의 발음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문교부 표기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Webster's Biographical Dictionary의 발음에 의한 표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거의 이에 따르고 있지 않다가 생각한다. 그러나 서양 인명도 우리 말로 표기하는데 있어 목록자에 따라서는 여러가지로 표기가 되고 있다.

시 바 이 켜

슈 바 이 처

취 바 이 처

슈우바이처

이러한 현상이므로 일본어나 영어를 잘 한다는 목록자 자신들도 原著者名을 우리 말로 表記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써어질 경우 써어질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배열되므로 한 곳에 모아지질 않고 目錄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며, 따라서 同一한 사람의 성명의 표기가 달라짐으로써 著者記號까지 달라져 더욱 排列上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川瀨」가 「카와세」 「가와세」의 두가지로 표기했을 때, 저자기호는 李載喆 著者記號法을 적용할 경우, 「카66」 또는 「가66」으로 되어 두가지 저자기호가 나와 제2차 배열에 있어 또한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外書를 整理할 때, 標目的의 우리 말 표기문제 때문에 같은 도서관의 목록자들 끼리도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논쟁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目錄者들로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에 따라서는 자기도서관 나름의 「스텝·메뉴얼」에 의해, 과거의 표기가 다소 틀렸다 할지라도 그 스텝 메뉴얼에 따라 그대로 일관성 있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목록 작업상에

있어 도서관마다 안고 있는 보다 큰 隘路는, 目錄者들 가운데 日本語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도서관 장서 가운데 일본도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비중 때문에 그 隘路는 더욱 甚大하다 그 때문에 大學 敎科課程에도 日本語 講座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日書를 정리할만한 日本語 實力을 갖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整理上의 隘路를 解決하기 위해, 日書 目錄 作業上의 道具로서 「日本著者名便覽」¹⁴⁾과 「日本人名表記錄」¹⁵⁾이 있기는 하지만은, 「日本著者名便覽」에 收錄된 人名數는 18,000名, 「日本人名表記錄」에는 2,500名으로, 「文化人名錄」(昭和38年版)에 비하면 그 收錄人名數가 너무 적기 때문에 實務에 있어 크게 도움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 「文化人名錄」과 같은 龍大한 便覽을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日書 整理에 적지 않은 隘路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요새 新刊 日書의 著者들 중에는 「文化人名錄」에도 없는 人名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日本人名이 나올 경우에는 目錄者가 적당히 表記해 버리는 일이 많은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목록 작업상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大佐三四五著 '圖書館學展開'란 日書를 정리할 때, 目錄者가 基本記入에 있어 '大佐三四五'를 原名대로 「오사, 미요고」로 記入해야 할 것을 만약 目錄者 임의로 「다이사, 미요이쯔」로 표기하였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目錄者가 誤記 여부를 판단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은 「다이사, 미요이쯔」로 基本記入이 되고 배열도 그렇게 된다. 이와 같이 字順 排列의 基準이 되는 標目的 表記가 이처럼 무책임하게 작성되어 誤記됐을 경우, 「오사, 미요고」로 바로 檢索하려는 이용자들은 「圖書館學의 展開」란 책을 빌려 볼 수 없게 된다. 그래도 目錄者들에게 있어, 著者名의 基本記入은 「日本著者名便覽」같은 道具가 있어서 어느 정도 標目的 表記를 解決할 수 있지만은 基本記入이 團體名이나 書名일 경우에는 日本語 實力이 없을 경우 標目的 表記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整理에 있어 西書보다 日書의 整理가 目錄者들에게 있어 더 어려운 것은 著者名 標目的에 있어 原名表記가 어렵고, 日本語 實力이 英語보다 不足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도서관마다 안고 있는 苦衷인 것 같다. 日書 整理에 있어 目錄者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隘路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韓國圖協에서 「文化人名錄」과 같은 龍大한 「日本著者名便覽」을 發刊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으로는 現役 目錄司書들의 日本語 實力의 培養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日本語 實力 없이는

앞으로 目錄司書가 될 수 없는 현실이므로 大學에서 日本語 講座를 지금과 같은 初步段階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高級段階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敎科課程上에 이를 反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標目的 표기와 저자기호의 배정과는 직접 관계되는 작업인 만큼 목록 작성에 있어 표目的 精確한 표기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Ⅳ. 著作記號(副次的記號)組織上의 問題

著者記號(基本記號) 다음에 附加하는 標題記號(書名記號), 版次記號, 卷次記號, 複本記號 등의 各要素를 실제 適用하는데 있어서 도서관마다 그 組織이 다르다는 것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筆者는 우선 서울 市內 各大學圖書館 만이라도 著作記號의 組織의 實例등을 調査해서 여기에 例示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 아직 그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著作記號에 대해서 이를 카아드로 例示하면서, 이에 따른 問題點들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는 李載喆 著者記號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李載喆 著者記號表에 의한 카아드로 例示하려고 한다.

카아드: 例 1.

	로케크, 조세프 에스(S)
—R854S이3	社會學概論, Joseph S. Roucek, Roland L. Warren 共著, 李相佰 譯. 第3版. 서울, 正音社, 1961. 256P. 22cm.
	原書名: Sociology; an Introduction.
	1. J. Warren, Roland L., 공저. Ⅱ. 이상백 역, Ⅱ. 원서명. N. 서명

→圖書記號는 R854S이3로 하고 있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R854S 3 또는 R854S3, R854S3이 등으로 그 組織을 각각 달리 表記하고 있다. 이 경우, 著作記號(副次的記號)인 S(原書名記號)와 譯者記號(3 또는 이) 그리고 版次記號(3)의 配定의 順位가 다르고 譯者記號의 表記도 다르다. 「圖說圖書編目」에는 4人 以上の 翻譯書의 경우에는 著作記號의 構成이 原書名記號, 版次記號, 譯者記號 순으로 配定이 되어 있고¹⁶⁾, 共著書의

14) 孫成祐, 日本著者名便覽, 汎韓書籍, 1973

15) 金光永, 日本人名表記錄, 文化社, 1973

번역서는 原書名記號, 譯者記號, 版次記號 순으로 그 배정¹⁷⁾ 순위가 바뀌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表記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譯者記號의 表記를 初聲子音記號 ㅎ(이응)으로 할 경우, Sㅎ3 또는 S3ㅎ의 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譯者記號 ㅎ은 알파베트 O나 숫자 0(zero)와 混同할 可能性이 있다. 「도서관」이 R854Eㅌ 또는 R854Eㄹ의 경우도 ㅌ과 ㄹ은 알파베트 E와 混同하기 쉽다. 그리고 도서관이 R854Oㅎ의 경우에는 原書名記號와 譯者記號와의 區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著者記號로 착각할 수도 있다. 東書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일이 손으로 쓰는 방법, 다시 말하면 手書카드(Written Card)에 의하여 作成되고 있는 데다가 더구나 「도서관」은 活字 9 포인트 정도의 크기로 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混同할 可能性이 많다. 그래서 譯者記號는 初聲子音記號를 쓰지 않고 譯者의 姓字로 記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카드: 例 2.

□	경제사
경73-2	經濟史, 崔文煥 等著, 再版, 서울, 博英社, 楮紀 4294(1961). 515 P. 20 cm. 1. I. 최 문환, 등저.

→圖書記號는 경73-2로 하고 있다. 等著者의 경우, 書名이 基本記入의 標目이 되어 經濟史가 著者記號化되므로 書名記號를 줄 수 없다. 그래서 版次記號를 위하여 著者記號와 版次記號 사이에 '하이픈'을 挿入하였다. 이 경우 도서관에 따라서는 경73-12 또는 경73-12, 경73-12, 등 여러가지로 그 表記를 달리하고 있다. 경73-12의 경우 ㄱ을 부가한 것은 Barden 著의 Book Number¹⁸⁾의 알파베트 A를 版次表示를 위해 부가하는데 근거했다¹⁹⁾고 한다. 경73-12, 경73-12의 경우의 ㅂ 또는 ㅍ를 부가한 것은 出版社의 初聲子音 또는 그 첫자를 빌린 것이다.

이상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좋을지는 아직 著作記號 組織의 規則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著作記號가 ㉠의 경우, 版次記號가 7일 때는 7이 되는데, ㄱ은 숫자 77로 混同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ㄱ과 7사이에, 다시 말하면 書名記號와 版次記號 사이에 '하이픈'으로 구별해 주는 것도 그 한 방법일 것 같다.

카드: 例 3.

□	라이트, 쿠인시, 편.
W952㉠민	第三次大戦을 어떻게 沮止할 것인가. Quincy Wright, William Evan, Morton Deutsch 共著, 閔雲植, 李晦根 共譯, 서울, 세계평화연구소, 1969. 550P. 21 cm. 1. I. Evan, William, 공편. II. Deutsch, Morton, 민, 언식, 공역. W. 이, 최근공역. V. 서명

→도서관은 W952㉠민으로 하고 있다. 原書名을 알 수 없으므로 번역서명의 초성자음 ㅈ을 表示하였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W952㉠Kㅌ 또는 W952㉠K민, W952Kㅌ. 등으로 表記하고 있다. W952Kㅌ의 경우는 K라는 言語表示를 넣었는데 우리 말로 번역된 모든 책에다 전부 K라는 言語記號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된다. 佛典의 경우 言語表示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言語表示를 도서관기에 적용하지 않고 副標目 다음에 記入하고 있다.²⁰⁾ 이 경우를 보면 言語表示가 圖書記號의 構成要素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言語表示의 記入問題는 앞으로 研究課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카드: 例 4.

□	불전, 법화경
법97ㅌ구	妙法蓮華經, 鳩摩羅什 漢譯, 奘虛龍夏 國譯, 서울, 法寶院, 1971. 2v. 21cm. 1. I. 구마라습, 한역, II. 운허용하, 국역, III. 서명

→도서관을 법97ㅌ구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佛典을 著者記號化해서 불73ㅌ구로 表記해 왔으나 佛書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전 만으로는 가려 내기가 매우 어려워져, 앞의 카드 例와 같이 그 標目を 다시 세분하여 三藏各部 또는 개개의 經典의 慣用名稱인 副標目を 著者記號化하였다²¹⁾. 그리고 國名의 경우도 예로

16. 17) 金南碩, 圖說圖書編目, 啓明大學 出版部, P. 72, 74, 90 參照.
18) Barden, Bertha R., Book Numbers. ALA. 1937, -p. 17.
19) 金南碩, 圖說圖書編目, 啓明大學 出版部, 1975. P. 89 參照.
20) 韓國目錄規則, 39條 參照.

들면 한국, 외무부를 표목으로 했을 때, 國名을 저자기호화하여 한17로表記해 왔으나, 역시 한국을 표목으로 하는 수량이 많아지므로 '외무부'를 著者記號化해서 외37로表記해 주고 있다. 그러나 佛典의 경우 도서관에 따라서는 그 수량이 적으므로 統一書名인 佛典을 그대로 記號化하고 있는 것 같다. 聖書도 佛典과 같이 統一標目으로 하는데 佛典을 다시 副標目에 의하여 세분화한 것과 같이 聖書도 각 부분을 表示하기 위하여 副標目이 쓰인다.²²⁾ 그리고 佛典의 경우처럼 副標目を 저자기호화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副標目を 著者記號化하는 도서관은 佛書나 聖書關係資料를 주로 集書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에 많은 것 같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統一書名 基本記入의 標目を 著者記號化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規則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카아드 : 例 5.

□	제	
제897		禪, 東京, 國書刊行會,
	1977.	
	2v.	21cm.
1. 1. 서명.		

→이재철 저자기호표를 쓰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基本記入이 書名이 됐을 때, 그 書名이 單字인 경우, 標目的 記號化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著者記號를 주지 않을 수도 없어, 單字 標目的 記號化를 위해 Merrill年代記號表에 근거해서 發行年度 1977을 記號化하여 제897을 配定하였다. 이 方法이 이 경우, 合理的인 記號配定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문제 역시 앞으로 研究할 課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카아드 例 6.

170		김, 두현
김227○		倫理學概論, 金斗憲 著.
		서울, 正音社, 1961.
	230P.	21 cm.
1. 1. 서명.		

→同一한 著作이 아닐지라도 請求番號가 같을 경우

에는 出版社 또는 發行所의 첫字를 附加하여 구별해 주고 있다. 카아드 例와 같이 청구번호가 170, 김227○으로 될 경우, 170, 김227○으로 記述하고 있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書名의 첫字가 記號化됐으므로 그 다음字를 配定해서 구별해 주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方法이 다 문제가 있다. 첫째의 경우, 단일 출판사까지 같은 경우라든가, 두번째의 경우, 書名의 둘째字까지 동일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人 이상의 等著로 된 「DL—I—Aminobutyphosphonic Acid와 DL—2—Amino-2-Carboxyethylphosphonic Acid 및 그 誘導體들의 合成에 관한 研究」라는 책을 정리할 경우, 이 學術書名을 基本記入으로 해서 우리 말로 번역하여 表記할 때, 카아드상에 이 長文의 書名을 記述하는 作業도 문제가 되지만은 이를 著者記號化하려면 DL 略字에 대한 full title을 조사해서 記號化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용의한 작업은 아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어렵고 까다로운 케이스가 많지만은 紙面의 제한 때문에 더 많은 實例를 列舉치 못한다.

V. 結 語

이상과 같이 圖書記號 配定에 따른 여러가지 問題點 중에서 그 몇가지 경우만을 提示해 보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圖書記號 構成要素에 대한 理論的 定立마저 안 되어 있고, 用語의 統一도 안 되어 있어 實務에 있어 各要素의 個別的 記號配定에 混亂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翻譯書의 경우, 標目 記述을 어떻게 表記하느냐에 따라 著者記號가 달리 配定되므로 標目的 精確한 表記를 위한 圖書館 整理用 翻譯表記法을 따로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圖書記號 配定에 있어 各要素가 無秩序하게 組織되고 있는 데도 아직 標準化된 準則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마다 「도서기호」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整理業務의 一元化에 逆行되는 作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諸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韓國圖書協分類·目錄分科專門委員會 또는 韓國圖書館學會와 같은 公式機構를 통해 當面한 分類·目錄上의 實際問題들에 대한 세미나 등을 자주 開催하여, 충분한 審談를 거쳐서 먼저 현재 각 도서관마다 다른 著者記號表를 쓰고 있는 것을 하나로 統合하는 「標準화된 著者記號表」부터 마련되어야겠으며, 그 一環으로서 「著作記號」의 準則도 아울러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目錄 作業業務의 正常化 내지는 能率化를 이룩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21) 韓國目錄規則 解説, P. 140 參照
22) 韓國目錄規則 40條 參照.